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12절
 ·찬송: ①찬송가 86장(새찬송가 86장)
 ②찬송가 205장(새찬송가 287장)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다섯 사람”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아 온 사람들 중에는 돌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어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활동의 초기에 이곳을 활동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려는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비교 종합하여 사건의 실황을 살펴봄으로 은혜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순회여행을 끝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문 앞까지 발 디딜 틈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 들것에 중풍병자를 누여 운반하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자 서로 의논한 다음 기상천외한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위로 가져갔습니다. 당시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으로서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에까지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어림잡아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푸라기와 흙먼지가 쏟아진 것은 말할 것 없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흙먼지를 덮어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 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었으니 그 집 주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이한 것은 아무도 그들의 작업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고 그 집안에 그대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지붕 위의 네 사람이 침상의 네 모서리에 줄을 맨 다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드디어 침상이 방바닥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병이 중한 상태이고 낫기를 갈망한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예수께서 최소한 이런 책망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터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그가 지금까지 누웠던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벌떡 일어나 들것을 돌돌 말아서 힘차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이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귀중한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운반해 온 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1. 그들 모두 투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뚫어진 지붕 위에서 침상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낸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시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으면 문전에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 버리실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작업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집요한 노력과 과감한 행동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비상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시켰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 채로 지붕위로 올리고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달아 내린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여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오기까지도 네 사람의 협동이 있어야 했지만, 지붕위로 올리는 데는 더욱이 그러했습니다. 뜯어낸 공간 사이로 중풍병자를 침상 채로 달아 내리는 작업은 네 사람의 협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사람은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협력이란 의견 일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표가 같으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고집을 내세워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네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네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중풍병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1. 중풍병자는 자신을 도와준 네 사람을 신뢰하였습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침상에 누운 자신을 침상 채로 지붕위로 운반하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기발한 모험을 시도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병 고치러 왔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그런 변을 당할지, 지붕을 헐다가 지붕이 무너져 변을 당할 지, 침상을 달아 내리다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병자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간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최종 결단은 중풍병자가 내려야 하는 것이므로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은 두말 할 것 없습니다.

2.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니 그가 곧 일어나 들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안수하지도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셨으나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3.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고 이상으로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두 가지 소원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 53:5).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외 없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린 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 집요한 노력, 과감하고 비상한 행동, 적절한 협동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죄 사함과 병 고침을 갈망하며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이 같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유의 은총을 입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소식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Grace and Truth Church